



# 복날엔 뭘 먹지?

(보신탕에 대한 객설)



허 근

- 제민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경희대 외래교수

이제 조금 지나면 복날이 오는데... 땀은 나지요. 날씨는 엄청아구요. 체력은 고갈되지요. 그래도 월드컵 우리 대표팀 첫 경기날은 광란의 밤이었고 전 세계에 사는 우리민족은 다 흥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외친 걸과 토고와 월드컵 첫 축구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독일이 더웠다는데도 아프리카 흑인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덜 지쳐 있어 보였고 더 잘 싸웠습니다. 옛날부터 몸보신을 잘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죽했음 삼복을 정해서 보신탕을 먹는 날까지 있었습니까? 그래서 민간 음식으로 복날에는 집에서 기르던 똥개를 잡아서 가마솥에다 푹 끓여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며칠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누런 똥개가 복날엔 최고 인기품이었죠. 후후후... 하긴 요즘에야 보신탕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원래는 보신탕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똥을 먹지 않는 개는 옛날에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6.25전쟁 때 양식이 없었지요. 그 때만 하더라도 똥개 아니고는 한국 사람들은 안 먹었습니다. 먹질 않았

습니다. 요즘 아무 개나 잡아먹는 것은 개장국 집 장사꾼들이 하는 것이지 6.25전쟁 때라도 세 퍼드가 죽은 것은 거지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똥개만을 보신으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키웁니다. 부모 보신 시켜 준다고 말이죠.

똥이 그만큼 삭히는 힘이 강합니다. 근육을 삭히는 데는 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몽둥이쥘질 당하면 무엇을 먹입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골병이 들면 뭘 먹습니까? 똥물을 먹으면 절로 풀어지니까 똥퍼 먹일 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히 창독, 두드러 맞아서 뼈까지 골병들었을 때는 똥물이 최고입니다. 뼈에 상처 안가고 골병들었을 때는 똥물이 최고라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곤장 맞았을 때 최고입니다.

이것을 응용한 것이 왜놈들 경찰 아닙니까? 일본 놈들이 식민지 정책 할 때에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많이 두드러 찼습니까? 요즘 경찰서 안에 변소 있지요. 대한민국 경찰서안에 변소 있지요.



그런데 그 변소를 바깥에 내놨으면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신입생들, 너는 제일 늦게 들어온 신입생이니까 냄새 많이 나는데 옆에 누워서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입생들 하면 많이 맞았겠지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보내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하지만 변소 옆에 채우면 그 이틀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골병들고 했을 때 변소에 가서 한참 구린 냄새를 맡으면 몸이 풀립니다. 바로 왜놈들이 한의학을 연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형무소 나오면 형무소 문 앞에 뭘 갖다 줍니까? 두부 갖다 주지요. “애야 두부 먹어라” 하면서 두부를 먹어야 새로 죄를 지어서 형무소 안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형무소에 있다가 나오면 주위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다 바뀌지요. 옥의 독을 푸는 데는 바로 콩입니다. 콩, 두부를 형무소 문 앞에서만 줄 생각하지 말고 집에 와서 두부를 많이 주고 콩죽 같은 걸 많이 끓여 주라는 말입니다. 1년보다 2년, 2년 보다 3년 산 사람일 수록 많이 끓여 주십시오.

1년 산 사람은 콩죽 한 사나흘 끓여 주고, 5년 쯤 있다가 나온 사람은 한 달쯤 콩죽을 끓여주면 독이 싹 풀립니다. 그것을 알고는 왜놈들이 한의학에서 힌트를 받아서 형무소에서 밥해줄 때는 무엇을 넣습니까? 콩밥을 주지요? 옛날 형무소에서는 잡곡을 모두 다 콩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와전되어서 지금 두부는 죄를 다시지어 형무소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아까 내가 개장국 먹을 때 마늘을 넣어 먹는다 했는데 개에 특수한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개는 절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름에 개를 먹잖아요? 그리고 모든 네 발 동물

의 기름은 식으면 지방이 어리게 되지요. 개의 기름은 따뜻하게 데우거나 싸늘하게 식히거나 어리지를 않습니다. 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동맥에 경화작용을 안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기름은 비누가 되고 씻어야 되지 그대로 안 씻어지잖아요. 개기름은 물에 씻으면 그대로 씻어집니다. 그래서 개장 집에는 절대 비누가 필요 없습니다. 개고기의 최고는 개의 잔국이지요. 개고기를 꼭 고은 물말입니다.

식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개 국물을 꿀걱꿀걱 마셔서 개국의 영양이 흡수되게 해서 약 되는 것이 아니고, 국물 자체를 식도에 자주 축이라는 말입니다. 한 숟가락 가지고 조금씩 마셔서 언제든지 식도에 개국물이 묻혀 있을 정도로 합니다. 만약 양젓물을 마시거나 비상을 먹었다고 하면 식도로 내려가 안이 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유착이 되어서 구멍이 막히겠지요. 개국물로 이렇게 목을 축여서 있으면 유착이 안 됩니다. 목이 헐었다든지 목안에 이상이 있을 때 개 국물에 목을 축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개기름은 어리지를 않으니까 개기름이 식도에 항상 노글노글하게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유착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어떤 보신탄을 드셔야 할지 아시겠죠?

남은 축구경기도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4강이 아니라 우승하는 그 날까지 우리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면서...

이번 호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6월~7월은 내내 응원으로 대~한민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양계**

\* 필자연락처 : 02) 588-4346